

東・亞・文・化・5!

《詩經》의 즐거움의 세계

류창교

1. 머리말

2. 즐거움의 향유

1) 음주

2) 음악

3) 춤

3. 즐거움의 철학

1) 제 때 즐기자(及時行樂)

2) 알맞게 즐기자

4. 맺음말

《詩經》의 즐거움의 세계

류창교*

1. 머리말

'즐거움', 인간의 삶을 지탱시키는 강력한 감정 중의 하나이다. 중국문학사 최초의 시집이자 마음의 보물창고인 《詩經》에서는 이 중요한 감정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 본고는 인간의 주요 감정 중의 하나인 '즐거움'을 주제로 《詩經》에 나타난 중국인의 마음의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詩經》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근심', 즉 '우환의식'에 대한 연구이다. 《詩經》의 시인들은 불에 타는 듯한 가슴을 안고 근심에 젖어 잠 못 이루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매일 근심만 하고 살지는 않았으며 '즐거움'의 감정을 꽤나 노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詩經》 연구에서 이 '즐거움'의 감정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근심과 관련된 연구정도와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대단히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¹⁾ 졸고, 〈《詩經》의 근심세계 - '憂'字 用例를 중심으로〉(한국중국학회, 《中國學報》, 제78집, 2016, 11.) 참조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詩經》시인의 '즐거움'의 세계를 고찰할 때 고려할 점은 '즐거움'의 정의 및 관련표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즐거움'은 '즐거운 느낌이나 마음'인데, 일반적으로 '즐겁다'는 '기쁘다'와 함께 사용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즐겁다'에 대해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로 풀이하고 있어,²⁾ '즐겁다'는 '기쁘다'는 말과 상호 통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즐거움은 기쁨과 같은 말이며 한자로는 '즐거울 樂'과 '기쁠 횸'가 대표적인 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즐거움과 관련된 한자어는 '樂'과 '횸'이외에도 여러 글자가 있으며, 《詩經》에는 '즐거움'의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글자들이 출현한다. 본고는 《詩經》의 작품에서 '樂'과 '횸'를 비롯하여 소위 '즐거움'의 범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글자들이 구체적으로 출현하는 작품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⁴⁾ '즐거움'이라는 주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그세계를 고찰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즐거움'의 글자가 출현하는 작품들에 나타나는 즐거움의 향유법과 즐거움에 대한 태도에 관찰의 초점을 맞추었다.

《詩經》의 중국인들은 어떻게 즐거움을 누렸는가? 그리고 그들은 즐기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졌는가? 즉《詩經》에서 묘사하고 있

²⁾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참조.

^{3) &}quot;사전에서 기쁨은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즐거움은 '기쁘다'를 의미하는 '즐겁다'의 명사형입니다. 즉 즐거움과 기쁨은 같은 의미입니다."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서해문집, 2011), p. 162.

^{4) 《}詩經》의 어떤 작품들은 즐거움과 관련된 글자가 나오지 않지만 즐거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관점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본고에서는 즐거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시켰다.

는 즐거움의 향유와 철학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 주제이다.

2 즐거움의 향유

《詩經》속의 중국인들은 어떻게 즐거움을 누렸을까? 《詩經》의 작품 가운데 즐거움을 나타내는 글자가 출현하는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즐김의 방식은 모두 세 가지로 첫째, 음주 둘째, 음악 셋째, 춤이 다.

1) 음주

음주는 《詩經》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려지고 있다.

〈물고기와 마름풀 魚藻〉(小雅)5)

魚在在藻, 물고기가 마름풀 사이에 노는데,

有頒其首. 머리가 큼지막하네.

王在在鎬, 임금님께서 호경에 계시는데,

豈樂飮酒. 즐겁게 술 마시네.

魚在在藻, 물고기가 마름풀 사이에 노는데,

⁵⁾ 본고에서 인용한 부분은 이 작품의 제1장과 제2장이다. 본고의 작품 번역은 기본 적으로 김학주 역저, 《詩經》(명문당, 1988)을 참조하였으며, 논란이 있는 구절과 어투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했음을 밝힌다.

92 _ 東亞文化 第55 輯

有莘其尾, 꼬리가 길쭉하네.

王在在鎬. 임금님께서 호경에 계시는데.

飮酒樂貴. 술 마시며 즐거워하시네.

이 시의 앞 장의 제4구에는 "豈樂飲酒", 뒷장의 제4구에는 "飲酒樂 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은 동일한 글자를 순서만 다르게 배 치했을 뿐 그 뜻은 즐겁게 술 마신다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눈여겨 볼 것은 '豈(개)'인데 여기서 이 글자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愷(개)'와 통용되는 글자로 독음이나 의미 모두 '愷(개)'와 동일하다. 鄭玄의 箋에서는 이 글자를 "즐거울 樂"으로 풀고 있다. 6 즐겁게 술을 마시는 거나,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나 큰 의미 차이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며' 즐거워한다는 점이다.

〈남녘의 좋은 고기 南有嘉魚〉(小雅)

南有嘉魚, 남녘엔 좋은 고기들이

烝然罩罩. 득실득실 팔딱이네.

君子有酒, 군자에게 술이 있어,

嘉賓式燕以樂. 귀한 손님, 잔치로 즐겁게 하네.

南有嘉魚. 남녘엔 좋은 고기들이

烝然汕汕. 득실득실 헤엄치네.

君子有酒, 군자에게 술이 있어,

嘉賓式燕以衎. 귀한 손님, 잔치로 즐겁게 하네.

南有樛木, 남녘의 가지 처진 나무엔

⁶⁾ 鄭玄箋: "豈, 亦樂也." 《毛詩正義》, p. 1046.

甘瓠纍之. 단박덩굴이 감겨있네. 君子有酒. 군자에게 술이 있어.

嘉賓式燕綏之. 귀한 손님, 잔치로 편안하게 하네.

翩翩者鵻,펄펄 나는 집비둘기가烝然來思.떼 지어 날아왔네.君子有酒.군자에게 술이 있어.

嘉賓式燕又思. 귀한 손님께 잔치하며 술 권하네.

이 시 역시 '술'로 귀한 손님을 즐겁게 한다고 말한다. 이 시의 매 장의 제3구와 제4구는 각각 "君子有酒", "嘉賓式燕~"⁷⁾이 반복되면서 귀한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며 잔치를 베푼다고 말한다. 잔치는 귀한 손님에게 음식을 접대하며 즐기는 일인데 이 시에서는 "술이 있어" 귀한 손님에게 잔치를 열어 즐겁게 한다고 하였으니, '술'은 잔치를 열기 위한 필수품임을 알 수 있다. 매 장의 마지막 글자들은 제2구의 마지막 글자와 압운을 맞추었는데, 제1장에서는 "樂"이라고 하였고, 제2장에서는 "衎(간)"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衎"은 앞 장의 "樂"과 마찬가지로 "즐겁다, 즐기다"는 뜻이다.⁸⁾ 다음은 〈물오리와 갈매기 鳧鷖〉(大雅)의 제5장이다.

鳧鷖在亹, 물오리와 갈매기는 물가에 노니는데,

公尸來止熏熏. 임금님의 시동이 와서 기뻐하네.

旨酒欣欣,맛있는 술 즐기며,燔炙芬芬.고기구이 향기롭다네.

公尸燕飮, 임금님의 시동 잔치에서 술 마시니,

無有後艱. 뒤로는 재난이 없겠네.

⁷⁾ 여기서 "式"은 어조사이고, "燕"은 宴과 통용되어 "잔치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8) 《}毛詩正義》, p. 714.

이 시에서 즐거움과 관련된 표현은 제2구의 "熏熏"과 제3구의 "欣欣" 인데, "熏熏"은 기뻐하는 것이고,⁹ "欣欣"은 "즐거워하다. 즐기다"는 뜻이다.¹⁰⁾ 제3구에서는 맛있는 술을 즐긴다고 하였고 제4구에서는 안주로고기구이가 등장하며 다시 제5구에서 "잔치에서 술 마신다(燕飮)"¹¹⁾고하였다. 《詩經》의 중국인에게 술이 잔치를 즐기기 위한 필수품이라면, 안주는 술을 즐기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이 밖에 〈점잖은관 頻弁〉(小雅)에도 "맛좋은 술 있고, 풍성한 안주 있는데(爾酒旣旨, 爾 殺旣阜.)",¹³⁾ "이 밤에 술을 즐기어, 군자들이 잔치하네.(樂酒今夕, 君子維宴.)"¹⁴⁾라는 표현이 나오고, 〈북산 北山〉(小雅)에도 "어떤 자는 음주에 빠져 즐기고(或湛樂飮酒)"라는 표현이 나와¹⁵⁾ '음주'가 즐거움을 누리는 대표적인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詩經》에서 '술(酒)'을 언급하고 있는 작품은 수 십 편에 이르며,¹⁶⁾ 술

^{9) &}quot;熏熏, 和說也.", 《毛詩正義》, p.1296.

^{10) &}quot;欣欣然, 樂也." 《毛詩正義》, p.1296.

¹¹⁾ 원문의 燕飮은 宴飮으로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것,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킨다.

¹²⁾ 이 시의 제1장의 제3, 4구에는 "술은 맑고 爾酒旣淸, 안주는 향기로운데 爾般旣 馨", 제2장의 제3,4구에는 "술은 많고 爾酒旣多, 안주는 훌륭한데 爾般旣嘉", 제3 장의 제3, 4구에는 "술을 거르고 爾酒旣湑, 안주는 건포로 爾骰伊脯"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¹³⁾ 제3장 제3, 4구.

¹⁴⁾ 제3장 제11, 12구.

¹⁵⁾ 제6장 제1구.

^{16) 35}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边凤、〈《诗经》酒文化研究〉、河北师范大学、硕士论文、 2011. 5. 20, p.6)이 있고, 55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周蒙, 冯宇、〈从《诗经》看商周 酒文化现象及精神〉、《社会科学战线》、1993年 第5期、孟庆茹、索燕华、〈《诗经》与酒 文化〉、《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2年 第3期, p.52 재인용)이 있다.

'酒'자가 출현하는 회수는 63회일 정도로¹⁷⁾ 술은 《詩經》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요소 중의 하나이다. 《詩經》에서 술은 근심을 해소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제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물품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잔치를 즐기는 필수품이었으며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¹⁸⁾ 술을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詩經》의 중국인의 주요 생활방식중의 하나였다. ¹⁹⁾

2) 음악

다음으로 즐기는 방식은 음악이다. 음악이란 악기와 노래를 포함한다. 즐거움은 본래 악기와 연관성이 깊다. 즐거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글자인 즐거울 '樂'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說文解字》에서는이 글자를 "五聲八音을 총칭한 것으로,²⁰⁾이 글자의 상부는 '鼓鞞(작은 북과 큰 북)'의 모양을 본뜻 것이고, 하부의 '木'은 '쇠북을 거는 틀기둥

¹⁷⁾ 边凤、〈《诗经》酒文化研究〉(河北师范大学、硕士论文、2011. 5. 20) p.6, 扬之水、〈《诗》中之酒〉、(《中国典籍与文化》、1998. 4)、孟庆茹、索燕华、〈《诗经》与酒文化〉、(《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2年 第3期) p.52 邓인용.

¹⁸⁾ 陈鹏程,〈从《诗经》酒诗看酒在周人社会生活中的功能〉(《内蒙古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8. 4. 15) p.345.

¹⁹⁾ 陈斯怀, 〈酒与《诗经》的游之精神〉(《文史哲》, 2013. 7. 5) p.133 补圣.

²⁰⁾ 伍聲은 5개의 音階로 즉 宮, 商, 角, 徵, 羽를 가리킨다. 八音은 금속(金), 돌(石), 줄(絲), 대나무(竹), 박(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 등 여덟 가지 재질로 만든 악기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鐘은 금속(金)에 속하고, 磬은 돌(石)에 속하며, 琴과 瑟은 줄(絲)에 속하고, 簫와 笛은 대나무(竹)에 속하며, 笙은 박(匏)에 속하고 垻은 흙(土)에 속하며, 鼓는 가죽(革)에 속하고, 柷과 敔는 나무(木)에 속한다. (웹사전 漢典 참조) 그러므로 '樂'은 본래 음악, 악기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虞)'을 가리킨다."고 하였다.²¹⁾ 許慎의《說文解字》는 '樂'자를 북의 모양으로 풀었지만, 羅振玉은 '樂'자가 나무 위에 실(絲)이 붙은 모양이고 사이에 있는 白은 악기 줄(絃)을 조율하는 기구로 보아 이 글자는 '琴瑟'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며,²²⁾ 학계에서는 이 설을 보다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²³⁾ '樂'자의 기원이 북이든 금슬이든 모두 악기와 연관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樂'자의 본래 의미는 악기이고 나중에 의미가 확장되어 '음악'(명사), '즐겁다'(형용사), '좋아하다'(동사)의 의미가 생겨났으며 마지막으로 '즐겁게 하다'(사역동사)는 의미로 발전되었다.²⁴⁾ 그러므로 즐거움을 나타내는 '樂'은 본래부터 악기라는 의미를 지녔고, 즐거움은 악기, 음악과 연관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즐거움과 같은 말로 보는 기쁨을 나타내는 기쁠 '喜'역시 그 기원은 악기와 연관성이 있다. '喜'字에 대해서 《說文解字》는 "樂이다"라고 하였고,²⁵⁾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서는 이 글자는 상부에 '壴'와 하부에 '口'가 결합된 글자로, '壴'는 악기를 늘여 세워놓아 위가 보이는 것을 말하고, '口'와 결합되어 會意字가 되는데, 여기서 '口'는 아래에서 웃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²⁶⁾ 또한 郭沫若은 "壴는 바로 鼓의 첫 글자로 상형

^{21) 《}說文解字》卷六, 木部.

²²⁾ 羅振玉,《增訂殷墟書契考釋卷中》,季解索,〈多音多义的乐字〉(《上海工程技术大学教育研究》, 2012, 12,15) p,58 재인용.

²³⁾ 季解索, 〈多音多义的乐字〉, 위의 글, p.58.

²⁴⁾ 季解索, 앞의 글, p.64 참고.

^{25)《}說文解字》卷伍,喜部:"喜,樂也。从壹从口。凡喜之屬皆从喜。歡,古文喜从欠, 與歡同。虚里切."

²⁶⁾ 段玉裁,《說文解字注》: "喜,樂也。从壴。从口。壴象陳樂立而上見。从口会意,从口者笑下曰喜也。"《說文解字》,卷伍,壴部: "壴,陳樂立而上見也。从中从豆。凡壴之屬皆从壴。中句切."周福雄,〈"喜"字的构形及文化蕴涵探究〉(《语文教学与研究》,2007.11.5) p.52 补圣.

자이다."라고 하였다.²⁷⁾ '壴'字의 모양에서 士는 장식물이고 가운데는 북의 얼굴(鼓面)²⁸⁾이며 맨 아래는 북의 틀(鼓架)²⁹⁾이다.³⁰⁾ 그러므로 '喜'자의 본래 뜻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로 즉 북을 치며 기뻐 웃는다는 뜻이다.³¹⁾ 그러므로 '喜'역시 본래부터 악기와 연관되는 글자이다.

즐거움을 나타내는 글자인 즐길 '豈(개)' 역시 본래는 악기라는 뜻을 지녔다. '豈'는 상형문자로 맨 위의 山은 깃(羽) 장식이고, 가운데는 북의 얼굴(鼓面)을 나타내며, 아래는 북의 틀(鼓架)의 모양이다. 321' '豈'와 '壴' 두 글자의 모양과 구조는 똑같으며 모두 북(鼓)의 형상을 나타낸다. 331 《說文解字》에서 '豈'는 전쟁에서 기세를 떨치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해 연주하는 음악으로, 341' 개선가(凱旋歌), 勝戰樂을 나타낸다. 이때의음악(樂)은 북음악(鼓樂)으로 '豈'의 본의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돌아왔을 때 치는 '북음악' 다시 말해 개선 군대를 위해 열렬한 분위기를 돋우는 대표 악기인 '북(鼓)'에서 그 의미를 취하였다. 351' 여기에서 확장되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는 의미가 나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즐거움을 나타내는 많은 글자들이 본래는 '악기'를 나타내는 글자들로 음악과 연관되며, 음악은 본래부터 즐거움

²⁷⁾ 郭沫若、《卜辞通篡·世系》:"壴、乃鼓之初文、象形." 周福雄、 위의 글、 p.52 재인용.

²⁸⁾ 북에서 손으로 치는 왼쪽 가죽 면.

²⁹⁾ 북을 칠 때 북을 올려놓는 틀.

³⁰⁾ 徐山、〈释"豈"〉(《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2009. 1, 25) p.116.

³¹⁾ 周福雄, 앞의 글, p.52

³²⁾ 徐山, 앞의 글, p.116.

³³⁾ 徐山, 앞의 글, p.116.

^{34) 《}說文解字》卷伍, 豈部:"豈, 還師振旅樂也。一曰欲也, 登也。从豆, 微省聲。凡豈之屬皆从豈. 墟喜切."

³⁵⁾ 徐山, 앞의 글, p.116.

을 누리는 대표적인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詩經》은 명대의 劉鎌에의해 "樂經"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기가 많이 등장하며 연구에 의하면 《詩經》에는 28종의 악기가 등장한다.³⁶⁾ 그 중 《詩經》에서 즐거움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주요 악기는 종(鐘)과 북(鼓), 거문고(琴)와 비파(瑟), 생황(笙簧) 등이며, 대체로 종은 북과 함께, 거문고는 비파와 함께 등장한다. 먼저 종과 북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살펴보겠다.

〈물수리 關睢〉(國風, 周南)37)

參差荇菜. 올망졸망 마름풀을

左右芼之. 이리저리 고르노라.

窈窕淑女. 아리따운 아가씨

鐘鼓樂之.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하리.

위의 인용은 《詩經》의 國風, 周南의 첫 번째 작품인 〈關雎〉의 마지막 장이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는 "종(鐘)과 북(鼓)으로 즐겁게 한다(樂)."는 말이 나온다. 다음 작품에도 종과 북을 벌여놓고 술을 권하며 손님에게 잔치를 베풀어 즐거움을 누리는 장면이 나온다.

〈붉은 활 彤리〉(小雅)

形弓弨兮, 느슨한 붉은 활을

受言藏之. 받아서 잘 간직하네.

我有嘉賓, 내게 좋은 손님 있어,

中心貺之. 진심으로 그에게 주네.

³⁶⁾ 李婷婷, 〈《诗经》乐器考论〉(《古籍整理研究学刊》, 2005. 11. 30) p.35.

³⁷⁾ 본고에서 인용한 부분은 제3장 마지막 4구이다.

鐘鼓旣設, 종과 북을 벌여놓고, 一朝饗之. 아침부터 큰 잔치하네.

形弓弨兮, 느슨한 붉은 활을 受言載之. 받아서 잘 간직하네. 我有嘉賓, 내게 귀한 손님 있어, 中心喜之. 온 마음으로 기뻐하네. 鐘鼓旣設, 종과 북을 벌여놓고, 一朝右之. 아침부터 술 권하네.

形弓硏兮, 느슨한 붉은 활을 受言囊之. 받아서 활집에 넣네. 我有嘉賓, 내게 귀한 손님 있어, 中心好之. 온 마음으로 좋아하네. 鐘鼓旣設, 종과 북을 벌여놓고, 一朝酬之. 아침부터 술 따르네.

이 시는 매 장의 제2, 4, 6구의 매 구 세 번째 글자만 운을 맞추어(제 1장 藏, 貺, 饗, 제2장 載, 喜, 右 제3장 囊, 好, 酬) 서로 다른 글자를 배 치하고 있고 나머지 구절은 모든 글자가 동일하다. 毛詩序에서는 이 시는 천자가 공이 있는 제후에게 잔치를 베풀고 활과 화살을 내릴 때에 부른 노래라고 하였다. 38) 이 시에서 즐거움과 관련된 표현은 제2장 제4구의 '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喜'는 '樂'과 마찬가지로 본래 악기인 '북'에서 파생된 의미이다. 이 시는 매 5구에서 반복적으로 종과 북을 벌여놓는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제6구에서는 큰 잔치를 하고, 술을 권하

^{38) 《}毛詩正義》, p.730.

며³⁹⁾ 술잔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 종고(鐘鼓)는 잔치를 즐기는 필수품 인 술과 함께 고대 중국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주요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천자의 놀고 즐김을 노래한 (靈臺)(大雅)의 제3장과 제4장이다. 이 작품에서도 천자의 놀고 즐김은 음악과 함께 이루어지며 주요 악기는 종과 북이다.

儀業維樅, 경틀과 판의 나무걸이에.⁴⁰⁾

賁鼓維鏞. 큰 북과 큰 종이 있네.⁴¹⁾

於論鼓鐘, 아아 질서 있게 종을 치며,

於樂辟廳. 천자님 공부하는 곳 즐겁네.42)

於論鼓鐘. 아아 질서 있게 종을 치며.

於樂辟廳. 천자님 공부하는 곳 즐겁네.

鼉鼓逢逢, 악어 북 둥둥 울리며.⁴³⁾

朦瞍奏公. 청맹과니, 소경이 음악을 연주하네.⁴⁴⁾

³⁹⁾ 원문의 '右'는 '侑'와 통용되는 글자로 "권하여 먹이다."는 뜻이다.

⁴⁰⁾ 경틀(廣)은 종, 경쇠, 북 등의 악기를 다는 기둥틀을 말하고, 판(版, 원문의 業)은 경틀에 가로지른 나무 위에 대놓은 널빤지이다. 나무걸이(원문의 樅)는 이 널빤지 위에 종이나 경쇠를 다는 곳을 가리킨다. 김학주 역저,《詩經》, (명문당, 1988) p,426 참조.

⁴¹⁾ 원문의 '賁'은 큰 북(大鼓)을 가리키고, '鏞'은 큰 종을 가리킨다. 김학주, 위의 책, p.426.

⁴²⁾ 辟廳은 천자가 공부하는 곳을 가리킨다. 김학주, 앞의 책, p.426.

⁴³⁾ 鼉鼓은 악어가죽으로 만든 북을 가리킨다 김학주 앞의 책 p 426

⁴⁴⁾ 矇은 눈동자가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장님, 瞍는 눈동자가 없는 장님으로 모두 樂師들을 가리킨다. 奏公은 연주하는 일로 여기서 公은 일(事)이라는 뜻이다. 김 학주, 앞의 책, p.426.

종과 북은 역사상 가장 먼저 출현한 타악기이다. (章) '鐘'은 形聲字로 왼쪽은 금속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소리를 나타낸다. '鼓'는 '壴'와 '支'가 결합된 글자로 앞에서 살펴 본 바대로 왼쪽의 '壴'는 북 '鼓'자의 첫 글 자로 북을 의미하며, 오른쪽의 '支'자의 경우 상단 부분의 '+'은 북채(鼓棒)를 나타내고, 하단의 '又'는 손(手)을 나타내므로 결국 손에 북채를 들고 북을 치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6) 특히 북(鼓)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 중의 하나로 악기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북은 리듬감이 특히 강하여 단독으로 연주할 때는 주로 춤에 곁들여서 춤이 더욱 가지런 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한다. (章) '중고(鐘鼓)'는 상고시대 중요한 예악 도 구였고, (48) 당시 종고(鐘鼓)와 같은 타악기는 제사와 연회 등의 중요활동에서 빠질 수 없었으며 성대한 무대에서 독주 혹은 합주의 형식으로 연주되었다. (49) 《詩經》에서 종과 북은 규범화된 무대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고 즐길 때도 사용되었다. (50)

다음의 시에는 琴瑟과 함께 笙簧이 등장한다.

〈사슴이 울면서 鹿鳴〉(小雅)

呦呦鹿鳴,메에메에 사슴들이 울며,食野之苹.들의 다북쑥 뜯고 있네.

⁴⁵⁾ 齐柏平, 〈从"钟鼓"之乐到"钟表"之用-对一种音乐现象的思考〉(《中国人民大学学报》, 2013. 3. 16) p.121.

⁴⁶⁾ 齐柏平, 앞의 글, p.121.

⁴⁷⁾ 李婷婷, 〈《诗经》与器乐〉(聊城大学, 硕士论文, 2007. 4. 1) p.32.

⁴⁸⁾ 李晓, 〈《诗经》中乐器的社会功能〉(《大众文艺》,2011. 10. 15) p.17.

⁴⁹⁾ 李晓, 위의 글, p.18.

⁵⁰⁾ 王华, 〈《诗经》乐器"八音"类述〉(上海师范大学, 硕士论文, 2011. 3. 1) pp.22, 76-77.

102 東亞文化 第55輯

我有嘉賓, 내게 좋은 손님 오시어,

鼓瑟吹笙. 비파 뜯고 생황 불어대네.

吹笙鼓簧, 생황 불며,

承筐是將. 폐백 광주리 받들어 올리네.

人之好我, 그이는 나를 좋아하여,

示我周行. 내게 위대한 도를 보여주네.

呦呦鹿鳴, 메에메에 사슴들이 울며,

食野之蒿. 들의 쑥을 뜯고 있네.

我有嘉賓, 내게 좋은 손님 오셨으니,

德音孔昭. 그이 말씀 매우 밝네.

視民不恌, 백성들에게 두터운 정 보이시니,

君子是則是傚. 군자들도 본받고 따르네. 我有旨酒, 내게 맛있는 술 있어, 嘉賓式燕以敖. 귀한 손님 잔치하며 노네.

呦呦鹿鳴, 메에메에 사슴들이 울며,

食野之芩. 들의 금풀을 뜯고 있네.

我有嘉賓, 내게 귀한 손님 오시어,

鼓瑟鼓琴. 비파 뜯고 거문고 타며. 鼓瑟鼓琴. 비파 뜯고 거문고 타며.

和樂且湛. 화락하고 즐기네.

我有旨酒, 내게 맛있는 술 있어,

以燕樂嘉賓之心. 잔치하여 귀한 손님 마음 즐겁게 하네.

이 시에서 즐거움을 나타내는 글자는 제3장의 "樂"(제6구, 제8구)과 "湛"(제6구)이다. "湛"은 "樂"과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나타낸다. 毛傳에서는 "즐거움이 오래가는 것"이라고 하였고.⁵¹⁾ 小雅의 〈賓之初筵〉에도

⁵¹⁾ 毛傳: "湛, 樂之久." 《毛詩正義》 p.654.

이 글자가 나오는데. 鄭玄의 篆에서 "즐겁다이다"라고 하였다.52) 毛詩序 에서 이 시는 신하와 훌륭한 손님에게 잔치를 여는 것이라 하였다 53) "첫 장의 중점은 연회가 진행되는 과정의 성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瑟과 笙 籍을 통해 장중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찬 잔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어 금슬(琴瑟)을 연주하며 화락하고 즐긴 다고 하였으니. 종과 북(鐘鼓)에 이어 '거문고와 비파(琴瑟)'가 즐거움 을 누리는 주요 악기였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은 연회가 고조에 들어가 는 정경을 그리고 있는데 연회가 시작되는 제1장의 묘사와 비교해볼 때 연주 악기로 거문고(琴)가 추가되어 있다. 연회에서 琴瑟을 연주하는 것 은 기쁨의 분위기를 증대시키면서 정서를 함양하여 君臣을 단결시키는 효과까지 있다."54) 또한 제2장과 제3장의 제7,8구에서는 맛있는 술 있어 귀한 손님에게 잔치를 열어 즐겁게 한다고 하였으니 역시 잔치의 필수 품인 술과 함께 음악을 곁들어 잔치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詩經》에서 '瑟'은 귀족의 향락의 도구였으며,55) "笙簧은 瑟과 마찬가지로 주나라 귀 족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왕공귀족 내지 경대부의 연회에서 늘 출현하는 악기들이었다."56)

다음은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을 누리는 장면이다.

^{52)〈}賓之初筵〉:"其湛曰樂, 各奏爾能." 鄭玄箋:"湛, 樂也." 《毛詩正義》 p.1035.

^{53)《}毛詩正義》p.654.

⁵⁴⁾ 李晓, 앞의 글, p.18.

⁵⁵⁾ 王华, 앞의 논문, p.49.

⁵⁶⁾ 李婷婷, 위의 석사학위논문, p.33.

〈구부정한 언덕 卷阿〉 (大雅)57)

有卷者阿. 구부정한 언덕에.

飄風自南. 회오리바람 남쪽에서.

豊弟君子, 즐거운 군자님들이

來游來歌, 놀러와 노래하며,

以矢其音. 그의 소리 읊네.

.

君子之車, 군자님들의 수레는

旣庶且多. 많기도 하여라.

君子之馬. 군자님들의 말은

旣閑日馳. 의젓이 달리고 있네.

矢詩不多. 읊은 시 많지는 않으나.

維以豫歌. 마침내 노래로 부르네.

이 시는 毛詩序에서 현자를 구하여 등용할 것을 권한 것이라고 하였다. 앞 장을 보면 즐거운 군자들이 놀러와 노래한다고 하였다. 이 시에서 "豈弟"는 "즐겁고 온화한 모양"을 의미한다. 58) "놀러와 노래한다."는 것은 왕이 현자를 예우하므로 즐거운 군자들이 왕에게 와서 노래를 불러왕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59) 앞 장의 마지막 구의 "亩"은 노랫소리이고, "失"는 "陳", 즉 "읊다, 진술하다. 늘어놓는다."는 뜻이다. 60) 뒷장의 마지막 구 구절에서도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이 나온다.

⁵⁷⁾ 인용부분은 첫 장과 마지막 장임.

^{58) 《}詩經》에는 "豈弟"와 "豈弟君子"라는 표현이 여러 작품에 등장한다. "豈弟"라는 표현은 〈載驅〉(齊風)에 처음 나오는데 《毛詩正義》에서는 "즐겁고 온화하다(樂易然)."로 풀었다. 《毛詩正義》, p. 414.

^{59) 《}毛詩正義》, p.1323.

^{60) 《}毛詩正義》, p.1323.

3) 춤

춤은 《詩經》에서 음주, 음악과 함께 대표적인 즐김의 방식이다.

〈굉장하기도 해라 那〉(商頌)

猗與那與, 굉장하기도 해라.

置我鞉鼓. 자루 달린 북, 큰 북 벌여놓았네.

奏鼓簡簡, 둥둥 북 울리며

衎我烈祖. 우리 공 많으신 조상님들 즐겁게 하네.

湯孫奏假. 탕 임금의 손자 양공이 신의 강림 비니

綏我思成. 많은 복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네.

鞉鼓淵淵, 자루달린 북, 큰 북 덩덩 울리고

嘒嘒管聲. 필리리 관악기 울리네.

旣和且平, 조화되고 고르게

依我磬聲. 경 소리를 따르니,

於赫湯孫, 아아, 빛나는 탕 임금의 손자여!

穆穆厥聲. 그 소리 아름답기도 하네.

庸鼓有斁. 큰 종과 북소리 한데 어울리며.

萬舞有奕. 춤은 무르익는데

我有嘉客, 여기 참석한 손들도

亦不夷懌. 크게 기뻐하시네.

.

이 시에서 즐거움을 나타내는 글자는 제4구의 "衎"과 제16구의 "夷 懌"이다. "衎"은 전술한 바대로 "즐겁다"는 뜻이다. "夷"는 "기뻐하다" 는 뜻으로 이 표현은 鄭風의 〈風雨〉에도 나오는데.⁶¹⁾ 毛傳에서 "기뻐하

^{61)《}詩經》、〈風雨〉(鄭風): "既見君子, 云胡不夷?"

다"로 풀었고. 孔穎達의 疏에서도 "반드시 크게 기뻐함을 말한다."고 하 였다 62) "惺" 또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으로 결국 "夷懌"은 '기 쁨'을 의미하는 두 글자가 결합된 것이다. 이 시에는 음악과 춤이 어우 러져 즐거움을 누리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먼저 제2구에서 제4구 까지는 북을 울려 조상님을 즐겁게 한다고 하였다. 제7구에서 제12구까 지는 북, 관악기, 경 등 다양한 악기가 연주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이 시는 成湯을 제사지내는 것이다. (3)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즐겁게 하 는 행위이다. "종묘제사는 고대 중국의 중요한 제사활동으로 商周 시대 에 제사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식행위였다. 周나라 사람들은 악기를 만들 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악기연주로 선조의 신령을 기쁘게 하는 것 을 중요 大事로 삼았다."64 "제사라는 것은 악기를 신과 통하는 祭器로 삼아 음악을 매개로 하여 선조의 신령과 소통하는 것으로 제사의식에 서 기악연주는 신과 사람을 즐겁게 하여 사람과 신이 함께 즐기고 소통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⁶⁵⁾ 제13구에서 제16구까지는 "큰 종(庸)"과 "북 (鼓)"이 "춤(萬舞)"과 어우러져 손님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였다. 萬舞는 고대의 춤으로 宗廟와 산천에 제사지낼 때 사용하였으며, 방패(干)와 도 끼(戚)를 쓰는 武舞.⁶⁰ 피리(籥)와 꿩깃(霍羽)을 쓰는 文舞로⁶⁷⁾ 이루어졌 다 68)

⁶²⁾ 毛傳: "夷, 說也." 孔穎達疏: "言其必大悅也." 《毛詩正義》, p.366.

^{63)《}毛詩正義》, p.1684.

⁶⁴⁾ 李晓, 앞의 글, p.16.

⁶⁵⁾ 李晓, 앞의 글, p.17.

⁶⁶⁾ 干舞라고도 함.

⁶⁷⁾ 籥舞라고도 함.

^{68)《}毛詩正義》, p.190.

다음의 작품에서도 북 치고 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다음은 〈살찌고 억셈 有駜〉(周頌)의 매장의 제7, 8, 9구이다.

鼓咽咽,북소리 등등 울리는데醉言舞,취하여 춤을 추니于胥樂兮.모두가 즐거워하네.

鼓咽咽,북소리 등등 울리는데醉言歸,취하여 돌아가니于胥樂兮.모두가 즐거워하네.

君子有穀, 군자님은 녹이 있어 治孫子, 그것을 자손에게 물리시니 干蛋樂兮, 모두가 즐거워하네.

이 시의 매 장의 마지막 구절은 모두(胥) 즐거워하네(樂)로 끝나고 있는데, 제1장에서는 북(鼓)과 술(醉), 춤(舞)이 어우러져서 모두 즐거워한다고 하였고, 제2장에서는 북치고 술에 취하여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屈萬里는 이 시를 잔치하고 술 마실 때 축복하는 시로 보았다.⁶⁹⁾ 다음 작품에는 술과 음악, 춤이 함께 어우러져 연회를 즐기는 장면이 나온다.

〈손님이 막 연석에 드는데 賓之初筵〉(小雅)

實之初筵,손님이 막 연석에 드는데,左右秩秩.좌우 모두 질서 있네.籩豆有楚,음식그릇 많기도 하며,

⁶⁹⁾ 屈萬里 選注, 《詩經選注》(正中書局, 民國65), p.199.

108 _ 東亞文化 第55輯

殽核維旅. 고기와 갈비 차려져 있네.

酒旣和旨. 술은 맛있게 빚어져.

飮酒孔偕. 모두 다 술 마시네.

鐘鼓旣設. 북과 종을 벌여놓고.

舉酬逸逸. 술잔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大侯旣抗. 큰 과녁 펼쳐지고.

弓矢斯張. 활에 살 먹여 당기네.

射夫旣同, 사수가 다 모이니,

獻爾發功. 활 쏜 결과 아뢰는데.

發彼有的, 활 쏘아 과녁 맞혀서,

以祈爾爵. 그대 술잔 들기 바라네.

樂旣和奏, 음악이 어울려 연주되네.

烝衎烈祖, 여러 조상들 즐겁게 하여,

以洽百禮. 모든 예에 합당하네.

百禮旣至, 모든 예 갖추어지니,

有千有林. 크고 많기도 하네.

錫爾純嘏. 큰 복을 내려 주시니.

子孫其湛. 자손들 즐거워하네.

其湛曰樂, 그 즐거움 무르익자.

各奏爾能. 각기 자기 재주 발휘하네.

賓載手仇. 손님이 활쏘기 짝을 지으니.

室人入又, 주인도 들어와 한 몫 끼네.

酌彼康爵, 큰 잔에 술 부으니.

以奏爾時. 맞힌 분들 위해서일세.

이상은 〈손님 모인 잔치 賓之初筵〉의 제1장과 제2장이다. 먼저 제1장에서는 고기와 갈비 등 잔치 음식들이 나오고, 이어서 술과 악기(鐘鼓)가 등장하며 잔치 분위기를 돋유다 이어 제2장에서는 생활. 북 등의 악

기 연주와 춤이 어우러져, 여러 조상들을 즐겁게(衎)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籥舞"는 전술한 바대로 피리(籥)와 꿩 깃(霍羽)을 사용하는 文舞이다. 籥은 피리로, 부는 악기이지만 춤출 때 깃(羽)과 함께 잡았기 때문에 籥舞라고 불렀다. (한 至鼓는 文舞에 반주되는 악기이다. (한 전술한 바대로 즐거움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제2장의 제8구와 제9구에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글자로 "湛"과 "樂"이 등장한다. 이어서 제3장의 8구에서 "너울너울 연거푸 춤추네(屢舞僊僊)", 제4장의 제4구에서 "비틀비틀 연거푸 춤추네(屢舞僛僛)", 제8구에서 "덩실덩실 연거푸 춤추네(屢舞傞傞)"라는 표현이 나와 '춤'이 즐거움을 누리는 주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술, 음악, 춤 즉 한마디로 '飲酒歌舞'가 즐거움을 누리는 주요 방식임을 잘 보여준다.

신혼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다음 작품에도 '飮酒歌舞'가 어우러 진 즐거움의 세계가 그려지고 있다.

〈수레 굴대빗장 車罄〉(小雅)72)

間關車之牽兮, 수레 굴대빗장 빙글빙글 돌며,

思孌季女逝兮. 어여쁜 막내딸 시집가는 날.

匪飢匪渴, 배고픈 듯, 목마른 듯,

德音來括. 님의 목소리 듣고 싶어라.

雖無好友,素은 벗은 없으나式燕且喜.즐기며 기뻐하네.

^{70) 《}毛詩正義》, pp. 193~194.

⁷¹⁾ 毛傳: "秉籥而舞, 與笙鼓相應." 《毛詩正義》 p. 1035.

⁷²⁾ 본고에 인용된 부분은 제1장에서 제3장까지이다

110 東亞文化 第55輯

依彼平林,무성한 나무숲에는有集維鶴.꿩들이 모여 있네.辰彼碩女.저 키 큰 멋진 아가씨.

令德來敎, 아름다운 덕을 가르침 받았네.

式燕且譽, 즐기고 즐기리라.

好爾無射. 끝없이 그대 좋아하리라.

雖無旨酒,맛있는 술 없지만式飲庶幾,마셔주길 바라네.雖無嘉殽,좋은 안주 없지만式食庶幾,먹어주길 바라네.

雖無德與女,덕이 없지만 그대와 함께式歌且舞.노래하고 춤추리라.

이 시에서 즐거움을 나타내는 글자는 제1장의 마지막 구의 "燕"과 "喜", 제2장의 제5구의 "燕"과 "譽"로 이 시에서 "燕"과 "譽"는 모두 '즐기다'는 뜻이다.⁷³⁾ 마지막 구절에서는 술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신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상을 통해 '飮酒歌舞'는 《詩經》의 중국인들이 즐거움을 향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즐거움의 철학

《詩經》에는 즐기는 것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태도와 철학이 어떠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에서 보여주는 즐김에 대한 태도는 후대에도 계승되는 것들이어서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다.

⁷³⁾ 김학주, 앞의 책, p.376.

1) 제 때 즐기자 (及時行樂)

〈수레 소리 車鄰〉(奏風)

有車鄰鄰, 수레 소리 덜컹덜컹,

有馬白顚. 이마에 흰털 난 말이 끄네.

未見君子, 우리 님을 뵈려면,

寺人之令. 내시들을 통하면 되지.

阪有漆, 언덕엔 옻나무,

隰有栗. 진펄엔 밤나무.

旣見君子, 우리 님을 만나면,

並坐鼓瑟. 나란히 앉아 비파 뜯지.

今者不樂. 지금 즐기지 못하면.

逝者其耋. 세월은 흘러 덧없이 늙을 걸.

阪有桑. 언덕엔 뽕나무.

隰有楊 진펄에 버드나무

旣見君子, 우리 님을 만나면,

並坐鼓簧. 나란히 앉아 생황 불지.

今者不樂. 지금 즐기지 못하면,

逝者其亡. 세월은 흘러 덧없이 죽을걸.

이 시의 제2장과 제3장의 제5,6구는 마지막 글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즐기지 못하면 세월은 흘러 덧없이 늙을 걸", "지금 즐기지 못하면 세월은 흘러 덧없이 죽을 걸"에 나타나는 사상은 "제 때 즐기자" 즉 소위 "及時行樂"의 철학이다. 이것은 우리민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의 노랫말을 떠오르게 한다. 《詩經》의 시 특히 國風의 작품들이 민가라는 사실에 주목해본다면

112 東亞文化 第55輯

우리 민요와의 유사성은 매우 흥미로우며, "제 때 즐기자"는 즐김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산에는 스무나무 山有樞〉(唐風)

山有樞. 산에는 스무나무 있고. 隰有榆. 진펄엔 느릅나무 있네. 그대는 옷을 두고도. 子有衣裳. 弗曳弗婁. 걸치지도 끌지도 않고. 그대는 수레와 말을 두고도. 子有車馬. 타지도 달리지도 않지만 弗馳弗驅. 宛其死矣. 만약 그대가 죽어 버리면 他人是愉 딴 사람이 기뻐하리라

山有栲 산에는 복나무 있고. 隰有杻. 진펄엔 박달나무 있네. 그대는 집을 두고도, 子有廷內. 弗洒弗埽. 물 뿌리고 쓸지 않고. 그대는 종과 북을 두고도. 子有鐘鼓. 弗鼓弗考 치지도 두드리지도 않지만. 宛其死矣. 만약 그대가 죽어 버리면. 딴 사람이 차지하리라. 他人是保.

山有漆, 산에는 옻나무 있고, 隰有粟. 진펄에는 밤나무 있네. 子有酒食, 그대는 술과 음식이 있는데, 何不日鼓瑟. 어이 날마다 비파 타고. 且以喜樂, 재미있게 즐기면서, 날을 보내지 않는가? 宛其死矣, 만약 그대가 죽어 버리면,

他人入室. 딴 사람이 그대 집 차지하리.

이 시에서 즐거움과 관련된 표현은 제1장의 마지막 구절 "기쁠 유(愉)"⁷⁴⁾와 제3장의 제5구의 "재미있게 즐기며(喜樂)"이다. 제1장에서 제3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의미는 '때에 맞춰 지금 즐겨야' 한다는 관점이다. 먼저 제1장에서는 옷과 수레, 말이 있는데도 쓰지 않고 놔뒀다가 죽어버리면 남 좋을 일만 된다고 하였다. 제2장에서는 집이 있는데도 가꾸지 않고 종과 북과 같은 악기가 있는데도 즐기지 아니하고,⁷⁵⁾ 죽어버리면 결국 남의 차지가 될 뿐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술과 음식이 있는데도 어째서 날마다 비파(瑟)를 타며 재미있게 즐기지 않는지 묻는다. 검약이나 하다 제 때에 즐기지 못하면 죽을 때에는 후회나 하게 될 거라는 내용이다.⁷⁶⁾ 朱熹는 "大夫들이 친구에게 '及時行樂'하라는 뜻으로 노래 부른 것이라 봄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⁷⁷⁾ 다음은 〈점잖은 관 類弁〉(小雅)의 제3장이다.

有類者弁, 점잖은 관을,

實維在首. 머리에 쓰고 있네.

爾酒旣旨. 맛좋은 술 있고.

爾殽旣阜. 풍성한 안주 마련되었네.

豈伊異人, 저이들은 모두 남남일까?

兄弟甥舅. 형제와 숙질들이라네.

如彼雨雪, 눈이 내릴 때는

⁷⁴⁾ 毛傳: "愉, 樂也." 《毛詩正義》, p.446.

⁷⁵⁾ 毛傳: "有鐘鼓不能以自樂." 《毛詩正義》, p.445.

⁷⁶⁾ 김학주, 앞의 책, p.192.

⁷⁷⁾ 김학주, 앞의 책, p.193.

114_ 東亞文化 第55輯

先集維霰. 먼저 싸락눈이 내리네.

死喪無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

無幾相見. 서로 만날 날도 많지 않다네.

樂酒今夕. 오늘 밤에 술을 즐기어.

君子維宴. 군자들이 잔치하네.

이 시는 형제와 친척들이 모여 잔치하는 것을 읊은 노래로 군자는 여기 모인 형제를 가리킨다.⁷⁸⁾ 맛좋은 술 있고 풍성한 안주 마련해두었으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니 바로 오늘밤에 술을 즐기자고 말한다.

"及時行樂"의 정신은《詩經》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고전문학에서 오랜 동안 유지되어온 태도 중의 하나이다. 漢代 樂府인〈西門行〉에서 "모름지기 즐겨라. 즐기려면 당연히 제때에 하라(夫爲樂, 爲樂當及時.)"고하였고, 古詩十九首에도 "즐기려면 당연히 제때에 할 것이지, 어찌 올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爲樂當及時, 何能待來兹)"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及時行樂"의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 태도는 楚辭를 비롯하여 古诗十九首, 建安 문단의 三曹의 詩歌에도 깊이 드리워져 있으며,⁷⁹⁾ 唐代의 시인 李白과 宋代의 蘇東坡의 문학작품에서도 발견된다⁸⁰⁾

⁷⁸⁾ 김학주, 앞의 책, p.375.

⁸⁰⁾ 陈斌、〈论中国古代诗歌中的"及时行乐"主题〉(《宁夏社会科学》, 1999年 第1期), p.96.

2) 알맞게 즐기자

《詩經》의 시인들은 "제 때 즐기자"고 하였지만 그러나 "알맞게 즐겨 야한다"고 당부한다.

〈귀뚜라미 蟋蟀〉(唐風)

蟋蟀在堂, 귀뚜라미 집에 드니

歲聿其莫. 이 해도 저무는구나.

今我不樂. 지금 우리 못 즐기면

日月其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리.

無已大康, 다만 지나치게 즐기지만 말고

職思其居 언제나 집안일도 생각해야지

好樂無荒, 즐김은 좋아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良十瞿瞿. 훌륭한 선비는 조심하지.

蟋蟀在堂. 귀뚜라미 집에 드니

勢聿其逝. 이 해도 다 가누나.

今我不樂. 지금 우리 못 즐기면

日月其邁. 세월은 덧없이 가 버리리.

無已大康. 다만 지나치게 즐기지만 말고

職思其外. 언제나 밖의 일도 생각해야지.

好樂無荒, 즐김은 좋아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良士蹶蹶. 훌륭한 선비는 정신 차리지.

蟋蟀在堂. 귀뚜라미 집에 드니

役車其休. 김 수레도 일없어지누나.

今我不樂. 지금 우리 못 즐기면

日月其慆. 세월은 덧없이 지나가리.

116_ 東亞文化 第55輯

無已大康, 다만 지나치게 즐기지만 말고

職思其憂. 언제나 걱정거리 생각해야지.

好樂無荒. 즐김은 좋아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良士休休. 훌륭한 선비는 편안하게 즐기지.

이 시의 매 장 제3.4구는 앞에서 살펴본 〈수레 소리 車鄰〉(秦風)에 나 오는 "지금 즐기지 않으면(今者不樂)" 세월은 덧없이 흘러갈 것이라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제 때 즐기자, 지금 즐기자"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 나 이어서 매 장의 제5구에서 8구까지는 지나치게 즐기지 말고 현실의 문젯거리도 생각해야 하며 즐김을 좋아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지 말아 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 시에서 즐거움을 나타내는 글자는 매장 제 3구의 "樂". 매장 제5구의 "康". 그리고 제3장의 마지막 구의 첩어 "休 休"이다. "康은 즐기다"라는 뜻이다. 81) "休休"는 毛傳에서 "도를 즐기는 마음"으로 보았다 82) 매7구에 반복되는 "好樂無荒"의 "好"는 동사로 '좋 아하다'는 뜻이다. "荒"은 '넓고 멀다'는 뜻으로 '크게 하다, 지나치게 하 다'는 뜻이며, 시인이 즐길 것을 권하고선 또한 그 즐김이 도에 넘칠까 걱정되어 경계한 것이다.83) 孔穎達의 《毛詩正義》에서는 이 시가 "晋나라 84) 僖公을 풍자한 것으로 僖公이 지나치게 검소하여 아랫사람을 핍박하 여 예의와 법도에 맞지 않아 이 시를 지어 그것을 가엾게 여기고 세모의 한가한 때에 예를 갖추어 스스로 즐기게 하고자 한 것이다. 즐거움은 꽉 채워도 안 되고 예에서 벗어나도 안 되므로 예에 맞추어 알맞게 스스로

^{81) &}quot;康, 樂" 《毛詩正義》, p. 442.

^{82) &}quot;休休, 樂道之心." 《毛詩正義》, p. 445.

^{83) 《}毛詩正義》, p.444.

⁸⁴⁾ 唐風은 晋나라의 시로 唐나라는 후대에 晋나라로 부르기도 하였다. 김학주, 앞의 책, pp,189~190 참조.

즐기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⁸⁵⁾ 朱熹의 《詩集傳》에서는 "唐나라의 풍속은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백성들은 일 년 내내 조금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다. 세모의 한가한 때가 되어야 서로 음식을 차려놓고 술 마시며 즐겼다. 이때 일이 끝났음을 기뻐하여 너무 지나치게 본분에 어긋 나도록 즐겨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뜻을 노래한 것이 이 시이다."라고 하였다.⁸⁶⁾ "無已大康"과 "好樂無荒"은 즐김에 있어서 지나침을 경계하고 알맞음을 추구하는 태도이다.

'알맞게 즐기자'는 일종의 중용적 태도이다. 中庸 사상은 孔子에 의해 개창된 유가사상으로 지나침과 모자람 모두를 경계하는 '過猶不及'의 '알맞음'을 추구하는 철학이다.⁸⁷⁾ 孔子는 《詩經》 애독자이자 찬미자였으므로 즐김에서 지나침을 경계하고 알맞음을 추구하는 《詩經》의 철학은 일정정도 그의 중용사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詩經》속의 중국인들은 즐거움을 어떻게 향유하고, 즐김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과 태도를 지녔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詩經》에서 즐거움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출현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 주제를 고찰하였는데, 《詩經》에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글자들로 본고에서 다룬 작품에서는 단음절로는 "樂, 喜, 豈, 衎, 湛, 燕, 譽, 愉, 康" 등이 있고, 2음절로는 "熏熏, 欣欣. 豈弟, 夷懌, 休休" 등이 있었다. 즐거움의 언어가

^{85)《}毛詩正義》, p.442.

⁸⁶⁾ 김학주, 앞의 책, p.191.

⁸⁷⁾ 章权才、〈中庸之道与《中庸》学〉(《广东社会科学》, 2005, 8, 30) 补圣、

출현하는 작품 속의 중국인들은 술을 마시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감상 하며,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춤을 췄다. 즉 음주, 음악, 춤 이 세 가지는 그들이 즐거움을 향유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음주'는 근심의 정서 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지만 즐거움의 정서와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인은 근심거리가 있을 때 술을 마시지만, 즐거운 일 이 있을 때도 즐겨 술을 마셨다. 《詩經》의 중국인들은 종(鐘)과 북(鼓), 거문고(琴)와 비파(瑟) 그리고 생황(笙篁)등의 악기를 연주하거나 감상 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돋우고 즐겼다. 즐거움을 나타내는 주요 글자들인 '樂', '喜', '豊' 등은 본래 악기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로 '즐거움'의 정서는 그 기원에서부터 악기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에는 악기의 합주가 상당히 발전하여 종과 북(鐘鼓). 거문고와 비파 (琴瑟)가 함께 등장하여.88) 즐거움을 돋우는 경우가 많았다. 《詩經》의 중 국인들은 즐거울 때는 음주와 음악 이외에 춤을 즐겼다. 특히 연회나 제 사에서 술과 음악, 춤은 손님과 조상을 즐겁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었 다. 소위 '飮酒歌舞'를 통한 즐거움의 향유는 오랜 옛날부터 인류가 행해 온 것으로 만고불변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詩經》의 중국인들은 즐거울 때는 이렇게 술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한편으로는 즐기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뚜렷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及時行樂" 즉 때에 맞춰 제 때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하며 현재를 즐겨야 한다는 "及時行樂"의 사상은 오직 내일만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살며 현재적 삶의 가치와 즐거움을 간과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이다. 그러나 현재적 삶의 안락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태도는 자칫 퇴폐적 향락주

⁸⁸⁾ 李婷婷, 앞의 글, p.35.

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詩經》의 중국인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알맞게 즐겨야 할 것"을 강조한다.

술 마시고 노래하며 음악과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라. 그러나 제 때 그리고 알맞게 즐겨라. 이것이 《詩經》시대 중국인들이 말하는 즐거움의 세계이다.

참고문헌

毛亨传,郑玄笺,孔颖达疏。《毛诗正义》,北京:北京大学出版社,1999.

清 段玉裁 撰《說文解字注》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72 (1983)

屈萬里 選注、《詩經選注》、臺北: 正中書局、民國65 (1976).

김학주 역저. 《詩經》, 서울: 명문당, 1988.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울: 서해문집. 2011.

边凤、〈《诗经》酒文化研究〉、河北师范大学、硕士論文、2011、5、20、

陈斌、〈论中国古代诗歌中的"及时行乐"主题〉、《宁夏社会科学》、1999年第1期、

陈鹏程,〈从《诗经》酒诗看酒在周人社会生活中的功能〉,《内蒙古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8, 4.15.

陈斯怀、〈酒与《诗经》的游之精神〉、《文史哲》、2013.7.5.

党兆曌,〈《诗经》所涉乐器及其相关问题的研究〉,《赤峰学院学报(汉文哲学社会科学版)》, 2012, 6, 25,

高阳、〈《诗经》之"鼓"分析研究〉、《现代语文(学术综合版)》。2015.6.5.

贡方舟、〈享《鹿鸣》于盛世、叹《頍弁》于衰颓(下)〉、《中华儿女》、2012.7.5.

郭付利、〈《诗经》之诗乐观研究〉、贵州大学、硕士論文、2007. 5. 1.

郭付利、〈《诗经》之乐器应用简析〉、《青年文学家》、2009. 5. 23.

李婷婷〈《诗经》乐器考论〉、《古籍整理研究学刊》、2005年第6期、

李婷婷、〈《诗经》与器乐〉、聊城大学、硕士論文、2007.4.1.

李晓、〈《诗经》中乐器的社会功能〉、《大众文艺》、2011.10.15.

- 李晓、〈对《史稿》中《诗经》乐器研究的质疑〉、《北方音乐》、2011, 12, 15,
- 刘娟, 王譞、〈《诗经》及时行乐思想论析〉、商丘职业技术学院学报, 2013年 第6期,
- 刘莎、〈《诗经》中某些乐器的定名及形制考辨〉、《天津音乐学院学报》、2004.9.30.
- 刘莎,〈《诗经》中乐器的定名及形制考辨—关于其乐器学诸问题的阐释之二〉,《音乐探索(四川音乐学院学报)》,2004.9.30.
- 刘莎, 陈明,〈《诗经》中的祭祀诗与乐器运用〉,《南京艺术学院学报(音乐与表演版)》, 2008年 第3期
- 刘莎, 黄钟, 〈《诗经》中乐器作比的周代人伦观〉, 《武汉音乐学院学报》, 2007. 1. 25.
- 刘莎, 黄钟, 〈《诗经》中乐器总量及类别探讨一关于其乐器学诸问题的阐释之一〉, 《武汉音乐学院学报》。2004 3 30
- 孟庆茹, 索燕华, 〈《诗经》与酒文化〉, 《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2年 第3期,
- 季解索、〈多音多义的乐字〉、《上海工程技术大学教育研究》、2012.12.15.
- 宁胜克、〈《诗经》中26种乐器的文化解读〉、《江西社会科学》、2007年第5期、
- 齐柏平,〈从"钟鼓"之乐到"钟表"之用一对一种音乐现象的思考〉,《中国人民大学学报》,2013,3,16.
- 王华、〈《诗经》乐器"八音"类述〉、上海师范大学、硕士論文、2011、3.1.
- 王璐.〈《诗经》中的乐器种类及几个相关问题探讨〉、《陕西教育学院学报》,2006年 第 2期
- 王少良、〈从《诗经》饮酒诗看周代的酒礼及酒德〉、《重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4. 6. 25.
- 徐山、〈释"贵"〉、《黄钟》(武汉音乐学院学报), 2009, 1, 25,
- 徐亚军〈孔子"中庸"思想解读〉《佳木斯职业学院学报》2015 3 15
- 徐艳霞,〈论《诗经·国风》中的乐器〉.《聊城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1年第6期
- 楊雅君、〈《詩經》名物的情感表現功能〉,复旦大学,硕士論文,2014.6.1.
- 叶敦妮、〈《诗经》乐器考释〉、华中师范大学、硕士論文、2007.5.1.
- 喻林,〈从《诗经》中的乐器名称看周代社会的音乐文化生活〉,《长春师范学院学报》, 2012. 1, 20.
- 张潇潇、〈浅析《诗经》中的24种乐器〉、《黄河之声》、2010. 6. 23.
- 章权才、〈中庸之道与《中庸》学〉、《广东社会科学》、2005. 8. 30.

周福雄,〈"喜"字的构形及文化蕴涵探究〉,《语文教学与研究》, 2007. 11. 5. 周蒙, 冯宇.〈从《诗经》看商周酒文化现象及精神〉,《社会科学战线》, 1993年 第5期. 류창교,〈《詩經》의 근심세계 - '憂'字 用例를 중심으로〉, 한국중국학회,《中國學報》, 제78집, 2016. 11.

中文摘要

《诗经》里的快乐世界

柳昌娇

本文考察了《诗经》里中国人的快乐世界。主要考察了两个方面。第一,他 们享受快乐的方法是什么?第二. 他们对快乐有什么想法?本文找有关快乐 的语言出现的作品做研究对象, 那些作品里出现的有关快乐的语言如此。单 音节的词语是"乐. 喜. 岂. 衎. 湛. 燕. 誉. 愉. 康"等等. 双音节的词语是"熏 重. 欣欣. 贵弟. 夷怪. 休休"等等。这些诗歌里的古代的中国人常常喝酒. 演奏乐器 唱歌或者跳舞。饮酒、音乐、跳舞 这三个就是他们享受快乐的 典型的方式。先看看饮酒。饮酒本来跟忧患意识有深深的关系《诗经》里的 中国人有苦闷的时候常常喝酒解忧。可是考察结果饮酒也是享受快乐的一 种方法。他们快乐的时候也常常喝酒。第二. 音乐是享受快乐的主要方式。 钟鼓、琴瑟、笙篁等这些乐器是他们快乐的时候常用的享乐工具。因为表示 快乐的主要词语'乐','喜','贵'等等本身就是表示乐器的象形字所以快乐情 绪在起源上与乐器有关系。当时合奏的方式相当发达, 钟和鼓, 琴和瑟常常 一起出现助兴。《诗经》里的中国人快乐的时候除了饮酒和音乐以外还享受 跳舞了。特别是在宴会和祭祀上酒,音乐,跳舞是助兴让嘉宾和先祖享受 快乐的主要方式。所以我们可以说通过'饮酒歌舞'来享受快乐是从古代人类 实行的悠久万古不变的方式。

《诗经》里的中国人快乐的时候一方面这样喝酒、演奏音乐、唱歌、跳舞, 另一方面提出对享受快乐的两个明确的看法。第一. 及时行乐。这种态度对

为了明天牺牲今天的人很有帮助。但是如果太关注今天的安乐, 那也容易倾向于消极的享乐主义。《诗经》里的中国人看破这点就强调"好乐无荒"。

通过饮酒、唱歌、跳舞来享受快乐吧!但及时行乐而無已大康,好乐无荒。这就是《诗经》里的中国人所说的快乐世界。

关键词: 诗经, 快乐, 饮酒、音乐, 跳舞, 及时行乐, 無已大康, 好乐无荒